

90분짜리 승리가 필요한 바레인전

한국, 최근 치룬 3개 대회 연속 토너먼트 첫 판서 연장전

우승 위해 체력 안배 필요...바레인, FIFA 랭킹 113위 불과

다음 라운드를 위해서라도 바레인전은 반드시 90분 안에 끝내야 한다.

C조 1위를 차지한 한국은 22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바레인과 2019 UAE 아시안컵 16강전을 치른다.

바레인전부터는 내일이 없는 토너먼트다. 패배는 곧 탈락이다. 지는 팀은 골장 집을 싸야 한다.

전력상 한국의 우위가 예상된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3위의 한국은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반면 바레인의 FIFA 랭킹은 113위에 불과하다. 역대 전적에서도 10승4무2패로 한국이 크게 앞선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한국 입장에서는 바레인전에서 큰 소모를 피하는 편이 좋다. 앞으로 다가올 더 강한 상대들과 맞붙기 위해서는 최대한 힘을 비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규시간 내에 승부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안컵 토너먼트는 90분의 정규시간이 무승부로 끝나면 전후반 15분씩 연장전을 치른다. 여기서도 승자가 가려지지 않으면 승부차기



19일 오후(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NAS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축구 국가대표팀 손흥민, 황의조, 황인범 등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로 다음 라운드 진출을 가린다. 한국은 최근 세 번 연속 토너먼트 첫 판에서 연장전을 치렀다. 시작부터 힘을 잔뜩 빼면서 정작 더 강한 팀들을 상대하는 제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동남아 4개국(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베트남)이 공동 개최한 2007년 대회에서는 이란과의 8강전부터 120분 혈투를 치렀다. 승

부차기 끝에 4-2로 이겨 4강에 진출했으나 이미 너무 많은 힘을 뺐 뒤였다. 결국 결승 길목에서 만난 이라크에 승부차기 끝에 패해 탈락했다. 당시 이라크의 전력이 좋은 편은 아니었기에 이란전 혈투가 더욱 어렵게 다가왔다.

2011년 카타르 대회 토너먼트도 쉽지 않았다. 이번에도 이란이 우리를 힘들게 했다. 8강에서 미주한 두

팀은 4년 전과 마찬가지로 90분 안에 승부를 내지 못했다. 한국은 연장전에 터진 윤빛가람(상주)의 천금같은 결승골로 웃었으나 일본과의 준결승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고배를 마셨다. 피로가 잔뜩 쌓인 선수들은 연장전에서 주도권을 잡는데 애를 먹었다.

2015년 호주대회 8강전도 120분짜리 승부였다. 연장전 들어 폭발한 손흥민(토트넘)의 멀티골로 다음 라운드에 안착했으나 결국 원했던 우승컵은 가져오지 못했다.

24개국 체제의 첫 걸음으로 기억될 이번 대회는 3~4위전이 사라진 대신 8강이 아닌 16강부터 토너먼트가 시작된다.

우승을 위해서는 앞선 대회들보다 한 번의 토너먼트 경기를 더 이겨야 한다. 선수들의 체력 안배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90분 내에 끝을 보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연장에서는 강팀의 이점이 오롯이 살아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력상 열세에 있는 팀은 30분만 지나면 아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승부차기까지 간다는 생각에 버티기도 나설 수 있다. 이 경우 힘들 수 밖에 없다.

수비수 김진수는 "우리 팀은 골키퍼가 좋아 승부차기로 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잘 준비해서 90분 안에 승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류현진, 메이저리그 판타지 랭킹 84위

1위 크리스 세일...아시아 랭킹 최고 디다르비슈

류현진(32·LA 다저스)이 미국 통계사이트가 분석한 2019년 메이저리그 판타지 랭킹 투수 부문에서 84위에 올랐다.

미국 통계사이트 팬그래프닷컴은 19일(한국시간) 2019 메이저리그 판타지 랭킹 1~200위를 선정해 발표했다.

판타지 랭킹은 지난 시즌에 보여준 성적과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치로 선정된다. 팬그래프닷컴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예측 시스템 등을 활용해 선수들의 올해 예상 성적을 냈고, 이를 토대로 순위를 정했다.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투수 중 84위에 올랐다. 류현진은 지난 시즌 16경기에 등판해 82⅓이닝을 소화했다. 7승3패, 실점23, 평균자책점 1.97점, 탈삼진 89를 기록했다.

팬그래프닷컴은 올 시즌 류현진이 23경기에 등판해 126이닝을 던질 것으로 내다봤다. 9승을 거두고 삼진은 120개를 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 평균자책점은 3.67, 이닝당 출루허용률(WHIP)은 1.21로 예측했다.

판타지 랭킹 투수 부문 1위는 크리스 세일(30·보스턴 레드삭스)이 가져갔다. 세일의 예상 성적은 올해 32경기에 출전 204이닝 27승이다.



2위는 맥스 슈어저(35·워싱턴 내셔널스)가, 3위는 저스틴 벨렌더(36·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 선수 가운데는 일본의 다르빗슈 유(33·시카고 컵스)가 59위에 올라 가장 높은 순위에 랭크됐다.

“왓포드, 김민재 영입 제안...선수 의사 존중”

백승권 전북 단장 “아시안컵 끝나고 오면 정해질 부분”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28·전북)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왓포드로부터 입단 제의를 받았다.

전북 백승권 단장은 19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왓포드가 김민재에 대한 영입 제의를 해왔다”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건은 지금 시점에서 알릴 수 없다. 어쨌든 우리 구단은 김민재 선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할 것이다”고 했다.

2017년 K리그에 데뷔한 김민재는 선수층이 탄탄한 전북에서 주전 수비수로 자리매김하면서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다. 데뷔 첫 해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다. 안정감을 더하면서 탄탄대로를 밟았고, 태극마크를 달았다.

지난해 러시아월드컵 출전이 유력했지만 부상 때문에 좌절했다. 그러나 같은 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

고, 새롭게 출범한 벤투호 체제에서 완전히 주전을 꿰찼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을 끝으로 중국 프로축구 슈퍼리그에 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귀안의 영입 제안을 받아 이적 절차를 밟는 중이다.

백 단장은 “베이징 구단과 이적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 그러나 선수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며 “김민재 본인의 의사를 존중할 것이다”며 “현재 열리고 있는 아시안컵이 끝나고 돌아오면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북 구단은 아랍에미리트(UAE)에 있는 김민재와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

백 단장은 “김민재 선수가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알릴 수 없다. 현 시점에서는 내가 말하는 부분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LG 트윈스, 박용택과 2년 25억원에 계약

“LG 유니폼 입고 은퇴, 기쁘다”

프로야구 LG 트윈스는 20일 자유계약선수(FA) 박용택(40)과 계약기간 2년 총액 25억원(계약금 8억원, 연봉 8억원, 옵션 1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박용택은 2002년 LG에 입단해 17시즌 동안 2075경기에 출장, 타율 0.309에 2384 안타(통산 최다 안타 1위) 210홈런 308도루 1135타점을 기록한 프랜차이즈 스타다. 지난해 134경기에 출전해 0.303의 타율에 15홈런 76타점 89득점의 좋은 성적을 올렸다.

계약을 마친 박용택은 “FA 계약을 체결해서 기쁘다. LG 유니폼을 입고 선수 생활을 마칠 수 있어 기쁘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차명석 단장은 “FA 계약을 잘 마무리 해서 기쁘고 박용택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박용택은 팀 프랜차이즈 레전드 스타로서 앞으로 계속 애우와 존중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용택은 20일 호주로 먼저 출국해 자유훈련을 한다.

‘50세’ 구대성 감독, 호주리그서 실전 등판...1이닝 무실점 호투

독특한 투구폼 여전

만 50세의 구대성(호주프로야구리그 질롱코리아) 감독이 실전 경기에 등판해 무실점 호투를 펼쳤다.

구 감독은 19일(한국시간) 호주 의 질롱 베이스볼센터에서 열린 2018~2019 호주프로야구리그(ABL) 브리즈번과의 홈경기에서 세 번째 투수로 등판, 1이닝 1피안타 1볼넷 무실점 투구를 선보였다.

그는 2-9로 끌려가던 9회초 심판에게 다가가 투수 교체를 알렸고 유니폼을 벗은 후 자신이 마운드에 올랐다. 구 감독은 2명의 주자를 내보냈지만 실점 없이 경기를 마치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투구수는 17개였다.

전성기 시절과 비교해 구속은 한참 떨어졌지만,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는 독특한 투구폼은 여전했다.

경기를 마치고 더그아웃에 돌아온 구 감독은 선수들에게 연신 힘들다고 숨을 몰아쉬었다.

구 감독은 “오래간만에 던졌는데 힘들다. 나이 먹어서 던지면 안된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팬 서비스 차원에서 던진 것이다. 이제 더이상 던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활짝 웃었다.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야구를 모두 경험한 구 감독은 50세에 등판하는 진기록도 남겼다.

한편, 질롱 코리아는 2-9로 패했다. 시즌 7승 22패를 기록해 남서부 지구 최하위에 머물렀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순천, 창씨마을, 회현사, 선전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야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